■ 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19-546.
http://doi.org/10.17948/kcs.2022..94.519

김형준의 ‘동학사회주의’와 ‘네오휴머니즘’*

정혜정(丁惠貞)**

목 차

1. 서론
2. 동학 사회주의의 형성과 전개
3. 김형준의 동학사회주의와 ‘변증법적 생활태도론’
4. 휴머니즘 논쟁과 ‘인간본위’의 네오휴머니즘 규명
5. 결론

국문초록

일제하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이었다. 당시 동학사상의 전개는 이러한 사회주의와 맞물려 전개된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일제하 동학사상의 사회주의적 전개 양상을 ‘동학사회주의’로 명명하고, 이로부터 제시된 동학사상의 맥락을 김형준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김형준은 1930년대 사회주의와의 사상논쟁에서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다. 김형준의 동학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비판 속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자들과의 종교논쟁 과정에서 훈련되고 형성되었다. 그는 마르크스의 반기성종교의 종교투쟁이론을 수용하여 이를 수운주의 입장에서 재구성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7800).
** 동국대(경주) 갈등치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나갔고, 신문화운동에 나타난 동학사회주의를 계승하여 김기전의 '인간해방의 역사관'과 이돈화의 '생활양식과 의식계급의 발전론'을 '변증법적 생활태도론'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는 곧 '인내천주의'를 생활의 측면에서 적용한 것으로서 주객통일의 변증법적 '인간본위운동'을 뜻하고, 1930년대 네오휴머니즘의 근간을 이룬 것이었다. 한편 임화는 프로휴머니즘을 주장하면서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을 '무규정의 일반적 휴머니티'이자 '나치적 파시즘'으로 비판한 바 있다.

주제어: 김형준(김오성), 동학사회주의, 반종교 사상논쟁, 인간본위운동, 네오휴머니즘.

1. 서론

근대 동학사상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3.1운동을 이끈 사상적 배경이 되었고, 1920-3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 수용과 맞물려 '동학적 사회주의'의 특징을 드러냈다. 김기전(金起纏, 1894-미상)은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 규정한 것을 "해방의 역사"로 재설정했고, 이돈화(李敦化, 1884-미상)는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자의 단결"을 "무산자의 단결"로 표방했다. 또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한 역사발전을 "생활양식과 생활의식(생활력의 意的 활동)"의 상호 발전으로 바꾸어 史的 유물론을 동학적으로 적용했고, '계급의식'을 '의식계급'의 3단계(기계의식→계급의식→초월의식)로 변용하여 인류의 '동귀일체'를 지향한 바 있다. 물론 이는 마르크시즘과 볼셰비즘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속학적 맑스주의자'에 불과하였고, 또한 당시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1920년대 '유물론 논쟁'과 1930년대 초반 천도교와 사회주의자 간에 일어난 '반종교 논쟁', 그리고 1930년대 후반 '휴머니즘 논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하 동학사상의 사회주의적 전개 양상을 '동학사회주의'로 명명하고, 그 유형을 신문화운동그룹, 혁신파 및 고려혁명위원회, 조선공산당의 세 계열로 나누었다. 그리고 신문화운동 계열에서 제시한 동학사회주의의 맥락을 김형준(金亨俊, 1906-미상)[1]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

형준은 이돈화와 김기전이 제기한 동학적 사회주의를 계승하고 자신의 변증법적 생활태도론에 입각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시켜나가면서 네오휴머니즘을 체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르크스의 '반기성종교운동'과 관련된 그의 종교논쟁과 '인간본위론'에 입각한 동학사회주의는 네오휴머니즘과 더불어 일제하 동학사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일조를 가할 것이다.

2. 동학 사회주의의 형성과 전개

1) 국제정세의 판단과 동학사회주의의 형성

일제하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이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제의 잔인한 탄압과 폭력으로 좌절되었을 때, 동북아지역으로 확산된 사회주의는 조선이 재기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으로 간주 되었다. 당시 국제정세는 '약소민족(무산민중)의 혁명운동'과 '자본(제국)주의 열강의 결집'이라는 대립적 형국을 조성하였고, 노농러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피압박민족의 해방과 국제연대'라는 연합전선이 하나의 축으로 작동했다.

> 문화파의 현재 안중(眼中)에는 「조선사람은 아주 망하는구나」 하는 우국우민의 한심(恨心)이 품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까지든지 비관을 품고 있는 동물은 아니었다. (…) 동일한 문화파의 중에서 세부득이(勢不得已)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새로운 진리를 동경하게 되었다. 이것이 곧 사회주의적 신기분(新氣分)이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새로이 「조선사람도 낙망할 것이 아니라」하는 주관적 새 광선(光線)을 얻었다. 조선사람은 어디까지든지 이것이 아니면 살지 못하리라 단언하였다. 아니 조선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가 한가지로 이 정로(正路)를 밟지아니하면 안 될 것임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이 주의(主義)를 숭배하

1) 김형준은 김오성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오성은 그의 아호이다. 그는 1926년 용천 소작쟁의를 주도하였고, 1927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학생독서회 사건으로 피검되었다. 니혼(日本)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32년 천도교 청년당 기관지인 『농민』을 편집하였고, 조선농민사 상임이사를 역임하면서 평론가로 활동했다. 해방 이후 1945년 11월 결성된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선전부장을 맡아 활동했고, 1946년 2월 민전 상임위원 및 선전부장을 맡았다. 1946년 9월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3개월간 복역하였고, 복역 중 11월 조선인민당의 합당파와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의 3당 합당으로 남조선노동당이 발족하자 중앙위원에 피선되었다.

> 는 신진청년 중에는 세계무산계급과 공명(共鳴)하는 경제적 공산주의를 부르짖게 된 것이라.[1)]
>
> 대전(大戰) 이후로 그냥 분규상태에 있던 구미(歐米) 열국의 관계는 일시의 결합을 얻고 그들은 또 한번 걸음을 돌리어 중화대륙을 향하고 있다. (…) 세계적으로 본 금년 1년은 모든 약소민족 또는 무산민중을 한 편으로 해서 일어나는 혁명운동과 이를 반대해서 일어나는 자본열국의 결합운동이 서로 진세(陣勢)를 벌렸다.[2)]

사회주의는 비관과 낙망에 빠진 조선인에게 조선독립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이상으로 동경되었고, 시대가 부여한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했다. 동학사회주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었다. 천도교 신문화운동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김기전은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할 절대세력은 각국 각 민족 간의 무산대중의 양심을 통해서 발발하는 사회주의적 운동"이라 판단했고, 국제적 연대를 지향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항해 나가자고 하였다.[3)] 또한 당시 천도교 대다수 인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주의와 무관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최린은 천도교를 '사회주의를 가미한 민족주의'라 규정했고, 박진순은 '빈천자(貧賤者)의 주의(主義)', 혹은 '유물론자'라 자칭한 바 있다. 특히 김봉국은 천도교의 '인본주의(人本主義)'가 곧 공산주의'라 주장했고, 천도교 내부 인사 가운데는 이황처럼 스스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른 사람이 적지 않았다.[4)] 일제 또한 '적색 천도교인'이라 호명한 바 있다. 당시 동학의 후예들은 사회주의를 수용하여 신문화운동과 반제의 무산자연대로 방향을 전환했고, 공산사회의 세계공동체를 지향하며 인간을 사회적 존재, 우주생명의 한 울적 존재로 보았다.

본 글에서 '동학사회주의'[5)]라는 말은 동학과 사회주의가 결합된 양상을

---

1) 편집부 논설, 「激變 又 激變하는 最近의 朝鮮人心」, 『개벽』 37, 개벽사, 1923.7, 7-8면.
2) 起田(김기전), 「朝鮮의 一年・世界의 一年」, 『개벽』 64, 개벽사, 1925.12, 4-5면.
3) 小春 抄(김기전),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사적 기술」, 『개벽』 46, 개벽사, 1924.4, 53면.
4) 편집부 대담, 「誌上 三千里全體會議, 現下의民族主義勢力과社會主義勢力」, 『삼천리』 4-3, 삼천리사, 1932.3; 편집부 설문, 「諸氏의 聲明」, 『삼천리』 6, 삼천리사, 1930.5, 24면.
5) 당시 문헌에 '동학 사회주의'라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수운주의적 사회주의'라는 말은 등장했다 (편집부 논설, 「新幹會 解消 後 諸情勢 展望」, 『삼천리』 3-12, 1931.12, 10면). 동학은 정치적 금지

지칭하여 필자가 사용한 것이다. 불교의 경우는 1930년대 초반 만해 한용운이 '불교사회주의'라는 명칭을 썼다. 불교사회주의라는 말은 붓다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불교는 원래 "계급에 반항하여 평등의 진리를 선양한 것"이고, "소유욕을 부인하고 우주적 생명을 취한" 것이기에 붓다의 경제사상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불교사회주의가 된다고 하였다.[6] 불교사회주의와 동학사회주의는 일정부분 상통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학사회주의는 반자본주의, 인간해방으로서의 역사관, 역사·사회적 개성의 인간본위(인간주체)를 주장한 것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 동학사회주의의 성격과 세 계보

동학(천도교)이 사회주의를 수용했던 방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동학사상에 방점을 두어 마르크스의 史的 유물론을 비판적으로 변용한 신문화운동계열, ② 공산사회 건설을 중시하고 조선혁명을 지향한 천도교연합회와 고려혁명위원회 계열(아나키즘 그룹), ③ 동학을 곧 공산주의와 등식화했던 조선공산당 계열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수운주의[7]에 방점을 두면서 사회주의 이론을 소개·수용하고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하여 사업을 벌여나간 그룹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기전, 이돈화, 이동곡, 이창림, 김형준 등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김기전은 계급투쟁의 역사를 인간해방의 역사로 재구성하여 인식했고, 이돈화는 '생활양식'과 '의식계급'의 역사발전을 말했으며, 1925년 조선농민사이사회의 명의로 적색농민인터내셔날에 가맹을 청원한 바 있다.[8] 또한 이동곡은

어였다. 천도교청년동맹은 명칭을 '청년동학당'으로 고치려 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금지당한 바 있다(「청년동학당 당국에서 금지」, 『동아일보』, 1928.4.7. 2면).

6) 정혜정, 「만해 한용운의 불교유신사상에 나타난 '주체적 근대화'와 마음수양론」, 『불교학연구』 51, 불교학연구회, 2017, 140-141면.

7) 수운주의는 동학의 별칭으로서 인내천주의, 지상천국주의, 신인간주의를 의미했다. 특히 이돈화는 수운주의의 내용을 보국, 안민, 지상천국의 3단계로 나누면서 이를 각각 민족해방, 경제해방, 지상천국으로 의미 지었다. 편집부, 「諸氏의 聲明」, 『삼천리』 6, 삼천리사, 1930.5, 25면.

8) 량만석, 『동학의 애국애족사상』(조선사회과학학술집4 철학편273), 사회과학출판사, 2009, 126면.

인류의 공동생활을 주장하여 인내천주의를 기조로 하는 '공동의 생산기관'을 세우자 하였고[9], 이창림은 '한살림 제도의 생활방식'을 주장했다. 이동곡의 '공동 생산기관' 설립과 이창림의 '한살림 생활방식'[10]의 주창은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염두에 두어 이를 동학적으로 변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주로 천도교 혁신파로서 사회주의 가운데 '상호부조의 공산사회'에 가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 속에서 민족혁명을 도모했던 아나키즘 계열이다. 당시 경작지가 전무했던 익산 교인 200명을 이끌고 만주 길림성으로 들어가 공산촌을 건설하고자 했던 오지영, 고려혁명위원회 계열의 핵심인물이 된 정규선이나 김봉국, 최동희 등을 들 수 있다. 정규선은 사회주의의 근본정신이 '사회연대의 정신'임을 주장했고, 자본 군국주의에 대항하여 만민동포의 형제적 관념으로 초국가적 공산사회를 지향해 나가고자 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자연대란 계급적/도당적 연대에 불과하고, 자본계급에 대한 투쟁관념에만 갇혀 있어 만민동포주의에 기초한 공산사회 실현으로는 나가지 못한다는 점을 그는 아나키즘적 입장에서 비판했다.[11] 한편 동학농민혁명에서 활약했던 홍병기(洪秉箕)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는 김봉국과 논의하여 정의부와 함께 조선독립을 도모하였지만 "쉽게 일본 제국주의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공산주의와 영합하고 제3 공산당과 결탁하여 조선민족을 제3 생디칼리즘"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12]

---

9) 이동곡, 「中國에 在한 日本의 利權動搖와 東亞의 今後의 大勢」, 『개벽』 36, 개벽사, 1923.6, 25-26면.

10) 이창림이 한살림 생활을 주장한 것은 「오는 시절에는 常漢이 兩班되고 貧者가 富者된다」는 수운의 말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우주적 인생의 근저로부터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인내천의 진리와 인류의 한살림적 신생활을 세계개조의 참 이상으로 삼아 새 세상의 '신문화'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새 세상은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세상, 인간이 인간을 해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고 궁핍함이 없는 세상, 오직 인류가 인류를 서로 돕고, 뭇 생명이 상호부조로 함께 성장하는 세상이다. 中國 北京에서 李昌林, 「새삼스럽게 吟味되는 朝鮮의 崔水雲主義」, 『개벽』 40, 개벽사, 1923.10, 15-22면.

11) 정규선, 「개조문제에 관여하는 사회연대의 정신」, 『개벽』 27, 개벽사, 1922.9, 30-31면.

12) 조선에 수용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공유주의, 국가사회주의, 생디칼리즘, 길드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아나키즘, 아나코-볼셰비즘, 볼셰비즘 등 다양했다. 그러나 점차 주류를 이룬 것은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이다. 초기에는 마르크스 이론과 더불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최동희와 홍병기 역시 "정의부(定義府), 천도교, 형평사와 삼각동맹을 맺어 그 대동단결의 힘으로 러시아 공산당과 상통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제국정부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13] 이것이 바로 고려혁명당의 결성인데, 고려혁명당의 목적은 '동서에 흩어져 있는 무산군을 구원'하자는 것이었고, 그 강령은 '계급사회제도의 부인, 무산대중의 단결과 일치행동, 자유·평등·인류애가 흐르는 이상적 사회의 건설'이었다.[14] 특히 천도교 혁신파가 중심이 된 고려혁명위원회는 '빈천민중의 충복', '이규모 동질성의 공산당'이라고도 칭해졌는데, 북한 연구[15] 에서도 이들 혁신파들은 국제혁명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국제당과의 연계를 도모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천도교인으로서 사회주의자가 되어 사회주의 계급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제2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강달영[16], 천도교청년동맹원으로서 고려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을 했던 이황(李晃), ML당 재건활동을 벌였던 박호진(朴昊辰)과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다. 이황은 1921년 고려공산당에 입당한 후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및 극동청년대회에 조선학생대회의 대표자격으로 출석했던 인

무정부주의 이론이 유행했으나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점차 볼셰비키화되어 갔다. 원종린, 「勞農魯國의 종국, 볼쉐뷔키와 무정부주의」, 『개벽』45, 1924.3, 61면; 정혜정, 「식민지 조선의 러시아 사회주의 수용과 동북아연대: 아나키즘·볼셰비즘, 동학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27(13-1), 이화여대 인문학연구원, 2020.4, 145-146면.

13) 경희대학교소장본(복각), 『倭政時代人物史料』 3, 국회도서관, 1983, 75면.

14) 「연기 거듭 7삭만에 공소공판근개정: 고려혁명당 사건」, 『중외일보』, 1928.10.8.

15) 고려혁명위원회는 천도교 비밀지하혁명조직인 비상혁명최고위원회로 조직되었고, 주된 활동은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와 국제당을 상대로 천도교혁명활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대대적인 군사적 지원을 얻어 무력항쟁을 펼치고자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시베리아의 치타 부근에 있는 3개의 금광 구역을 이용하여 역부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2년 만에 1000명 정도의 군사를 키웠고, 15개 혼성여단의 고려국민혁명군 창설을 계획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노농 소비에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량만석, 앞의 책, 127-128면.

16) 강달영(1887-1942)은 천도교 진주 대교구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로서 농민과 청년의 선두에서 3.1운동을 지도하다가 투옥되어 1년 6개월간 복역하였고, 1921년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에 힘써 간부로 활동했다. 1923년 조선노동총동맹을 발기·결성하여 간부로 피선되었으며 1925년 제2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에 선출되었다. 1926년 천도교와 함께 6.10만세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하였다. 여기에는 그의 천도교 배경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제에 체포 수감된 후 고문으로 정신이상증을 발하였고, 1934년 출옥했으나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여 1942년 사망했다.

물이고, 부인 박호진은 근우회 간부로 활동한 대표적인 천도교 여성운동가로서 1930년 9월 ML당 재건조직을 주도했다.[17] 당시 천도교인 가운데는 소비에트와 연대한 볼셰비키가 적지 않았다.

3. 김형준의 동학사회주의와 '변증법적 생활태도론'

1) 김형준의 '반종교' 사상논쟁과 사회주의

김형준은 1930년대 초 사회주의와의 사상논쟁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다. 김형준의 동학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비판 속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자들과의 종교논쟁 과정에서 훈련되고 형성되었다. 김형준은 사상논쟁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반종교투쟁이론을 수용하여 이를 수운주의 입장에서 재구성해나갔다. 그는 먼저 마르크스의 종교이론을 검토하여 이를 "금일 이른바 자칭 맑스주의자들의 무정견(無定見)한 반종교운동을 비판하는 전제"[18]로 삼았고, 사회주의자들이 反천도교의 反종교투쟁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마르크스와 레닌의 입장에 반하는 것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고, '종교투쟁은 정치투쟁의 전제'가 되며, '사회적·물적 마술성의 제거에 따른 종교소멸'[19]을 주장했다. 이는 역사발전을 저해하는 기성종교의 현상을 비판한 것이었다. 또한 레닌도 동방종교가 제정 러시아의 지배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항하여 '반기성종교운동'[20]을 표방했었다. 1905년 당시 제정 러시아는 동방정교를 믿지 않으면 '종교범칙자(犯則者)'로 몰아 모두 살해했고, 신흥부르주아와 토착농민이 저항하여 봉기하던 때에 종교는 단지 '인민을 억압하는 정신적 毒酒'에 지나지 않았다.

---

17) 「ML당 후계조직 중 미연에 발각 검거: 근우회 간부 박호진」, 『매일신보』, 1930.9.9.
18) 김일우(김형준), 「맑스주의의 반종교이론 비판」, 『신인간』 58, 신인간사, 1932.8, 6면.
19) 마르크스·엥겔스는 경제관계나 생산수단이 노동자에게 어떤 외부의 불가항력적 힘으로 인식되는 지배(사회적·물적 마술성)가 종교라는 상부구조의 사실적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종교 역시 하부구조의 반영으로서 만약 인간이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종교의 토대인 사실적 기초가 제거되면 종교는 자연히 소멸된다고 보았다.
20) 레닌의 『종교에 관해서』가 1926년 독일어 일역판의 팜프렛으로 유통되다가 해방 직후 『사회주의와 종교』(조선산업노동조사소 번역, 1946)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김형준은 수운도 마르크스와 완전히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교훈가)라고 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반기성 종교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서 보듯이, 동학(천도교)은 민중의 이익을 위해 일어나는 '민중의 도구'이지 결코 지배권력의 도구이거나 민중의 아편이 아님을 밝히고자 했다. "기성종교가 지배층의 정신적 도구로 사용되어 피지배 민중에게 악작용을 가하고 있는 현상"[21]에 대해서는 수운도 이미 70년 전에 철저히 지적하고 폭로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김형준은 마르크스-레닌의 반종교이론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다른 모든 문화형태와 마찬가지로 "주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객관적 반영으로 파악하려는 점에서 독단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았고, 다른 문화형태는 놔두고 오직 종교만을 콕 찍어 "소멸된다"고 말하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22] 만약 모든 사물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니는 모순으로 인하여 전화·발전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종교만 예외적으로 영원소멸을 말할 수 없고, 변증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23] 더구나 선진 제국의 맑스주의자들이 이러한 독단을 내리는 것에는 이론적 근거라도 있는 것이지만 조선의 '자칭 맑스주의자'들은 아무 이론적 근거도 없이 허구만을 생산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 조선의 자칭 맑스주의자들은 맑스주의 창건자들의 종교에 대한 책자 하나도 접하여 본 일도 없는 셈인지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이 또는 아무 내용도 없이 다만 형식적 술어에 불과한 '종교는 아편이다.', '물질은 근본이다' 등등을 전람회장과 같이 나열하여 놓으면서 그 무리한 형적을 감추어보려고 무염치하게도 허구의 사실을 지여내기에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다.[24]

---

21) 김일우, 「사이비적 반종교운동의 비판: 맑스주의 반종교투쟁비판의 續」, 『신인간』 63, 신인간사, 1933.1. 9면.
22) 김일우, 「맑스주의의 반종교이론 비판」, 앞의 글, 8-9면.
23) 김일우, 「맑스주의자들의 반종교투쟁비판」, 『신인간』59, 신인간사, 1932.9, 8면.
24) 같은 글, 8-9면.

김형준에게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종교는 민중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민중을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려는 정신적 도구였다. 민중에게 굴종과 인내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반항과 개벽의식을 넣어주는 것이고, 이 세상의 고통을 내세의 천국에서 보상받는다고 민중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곤고와 비참을 벗어버리려는 지상천국운동이었다.[25]

2) 신문화운동의 동학사회주의와 그 계승

1920년대 신문화운동에 입각한 동학사회주의는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닌 '인간해방의 역사'로 규정했다. 역사는 공동생활의 인류연대를 지향하고, 민중 억압의 상호 대립 속에서 해방을 만들어나가는 역사이다. 김기전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시민의 인권선언'과 20세기 러시아 혁명의 '노동자 권리선언'이 그 해방의 기본정신을 표명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인권선언은 남성과 상공층 유산자들의 권리선언이었지 여성과 노동자 무산자들의 권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돈 가진 자의 혁명'[26]이었다. 서구 인권선언은 무엇보다도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원권(原權)에 기초해 있고, 그 실질 내용은 생명권과 소유권(재산권)의 권리였으며 이는 결국 빈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귀착되었음을 그는 강조했다.

> 실생활에 있어서 인류를 불평등하게 하는 것은 빈부의 懸隔이며 재산사유의 제도이다. 그때의 인권선언은 만인의 법률상 평등을 認하는 동시에 각 개인의 소유권제도를 신성화케 하얏다. 이 소유권의 신성화로 緣하여 실생활상 불평등한 사실도 또한 신성화하고 마럿다.[27]

한편 시민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무산자 민중의 기본권을 요구한 '노동자의 권리선언(경제적 기본권)'은 보다 진전된 제2의 해방선언(인권선

25) 같은 글, 10-11면.
26) 妙香山人, 「第一의 解放과 第二의 解放: 人類歷史上의 二大解放宣言」, 『개벽』 32, 개벽사, 1923.2.1, 27면.
27) 같은 글, 28면.

언)이었다. 이돈화는 인간해방을 '생활양식과 의식계급(意識階級)'의 발전역사로 구체화했다. 마르크스가 역사발전의 동력을 '생산양식(생산력과 생산관계)과 계급의식'에 두었다면 그는 '생활양식과 생활의식(生活意識)'에 역사변혁의 기초를 두었다. 인류의 역사가 의식과 의식이 교체하는 무대로서 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어 왔다고 했을 때, "봉건시대의 생활양식은 봉건적 의식으로 표현되고, 자본시대의 생활양식은 자본의식으로 표현"[28]된다. 이들 봉건의식, 자본의식은 생활의 의식계급에 해당한다.

마르크스는 '계급의식'을 강조했지만 이돈화는 '의식의 계급'을 강조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창조적 삶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생활력이 정신적으로 표현된 것이 의식이고, 의식계급은 그 시대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에 생활양식과 생활의식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생활양식이 변하면 생활의식이 개조되고, 생활의식이 개조되면 생활양식도 변화된다. 마치 기둥이 기울어지면 가옥을 고칠 생각이 생겨나는 것처럼 생활양식이 파탄됨에 따라 생활의식이 개조되고, 그 의식계급의 상태에 따라 생활양식은 변화한다. 여기서 의식계급은 기계의식(노예의식), 계급의식, 초월의식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29] 기계의식은 특권자의 사역물로 전락한 노예의식(굴종의식)이자 기계화된 의식으로서 동물화된 생활양식을 드러낸다. 반면 계급의식은 기계의식의 노예적 성격을 갈파하여 이를 해방하고자 하는 저항의식이다. 계급의식은 순수한 인간 자유의지의 창조라기보다 사회상태의 파탄으로부터 투영되는 의식이고, 자신이 속한 계급을 의식하고 사회제도를 개조하고자 하는 의식이다. 계급이 소멸되면 계급의식도 소멸된다. 또한 초월의식은 순수 인간의 창조적 본능에서 일어나는 초동물적, 초상대적 의식을 뜻한다. 이돈화는 이 의식이 충익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사회의 창조적 생명을 파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란 큰 '도박조직'과 같다. "경쟁과 소유욕으로 국가전체, 인류전체가 도박을 행하며 악의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30] 이러한 자

28) 이돈화, 「사람성과 의식태의 관계」, 『개벽』 59, 개벽사, 1925.5, 5면.
29) 같은 글, 6면.

본사회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이돈화는 계급의식을 고조시켜야 하고 이를 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월의식의 계급에 올라서야 함을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계급의식의 확산과 투쟁을 말했다면 이돈화는 생활양식의 모순에 따른 계급의식의 저항과 더불어 초월의식의 생명력을 말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급의식이 사회제도의 투영으로부터 생겨나는 의식이라면 초월의식은 우주적 생명, 인격적 생명의 창조본능으로 일어나는 인내천의 의식이다. 현실의 모순에 대항하는 계급의식을 영구적으로 지속케 하는 것도 초월의식이기에 이돈화는 계급의식에 이 초월의식의 수양을 지녀 한 걸음 더 초월의식의 계급에 오르자고 하였다.

김형준은 김기전과 이돈화가 제시했던 동학사회주의를 계승하여 자신의 사유를 발전시켜 나갔다. 김기전이 '인간해방으로서의 역사관'을 말하고, 이돈화가 '생활양식과 의식계급의 역사발전론'을 제시했다면 김형준은 이를 계승하여 '생활양식과 생활태도'에 의한 사회개조를 주장했다.[31] 이돈화가 의식계급의 발전으로 인간해방의 실천을 말했다면, 김형준은 '생활태도의 변증법적 발전'에 의한 개벽적 실천을 강조하고, 생활태도를 '사물에 대한 태도'와 '인간에 대한 태도'로 구분했다.[32] 또한 김형준은 마르크스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대립에서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그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대립적이 아니라 동질적인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생활양식과 생활태도'야말로 "대립과 통일의 이중적 관계"[33]라 하였다. 이는 곧 '변증법적 생활태도론'으로서 그의 독자적인 동학사회주의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김형준의 동학사회주의: '변증법적 생활태도'의 개벽적 실천

30) 이돈화, 「사람性과 意識態의 關係, 「機械意識」「階級意識」「超越意識」」, 『개벽』59, 개벽사, 1925.5, 3면.

31) 이돈화가 마르크스의 '생산양식과 계급의식'을 '생활양식과 생활의식(生活意識)'으로 변용했다면 김형준은 이를 '생활양식과 생활태도'로 재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2) 김형준, 「수운주의자의 인간적 태도」, 『신인간』79, 신인간사, 1934.5, 7면.

33) 김형준, 「인간해석사적으로 본 인간본위운동: 인내천주의 연구의 서곡」, 『신인간』75, 신인간사, 1934.1, 35면.

김형준은 인류 역사를 '해방의 역사', '의식계급의 발전'으로 보는 '동학사회주의'를 계승하여 유물론과 관념론을 지양·종합하고, 인간본위의 '변증법적 사상변천론'[34]을 주창했다. 이는 유심이라는 '正'으로부터 유물이라는 '反'을 거쳐 실재적 인간본위 사상으로 '지양·종합'되는 수운주의의 '물심일원(物心一源)'에 입각한 역사관이다. 서구 사상사가 만들어낸 관념론과 유물론의 이분법적 생활양식으로부터 인간본위의 새 사상으로 넘어온 것에 '인간본위 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있고, 변증법적 사상변천의 절정에 이른 수운주의는 계급을 대표하는 사상이 아니라 계급을 지양하려는 사상으로 규정되었다.

> 思潮의 변증법적 변천은 유심이란 正으로부터 유물이란 反을 거쳐 실재적 인간본위사상인 것으로 지양 종합 나아가 인간의 완전한 사상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수운주의는 인간사조의 尖頂에서 산출된 물건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금일까지의 계급사회에서는 출현할 수 없고 오직 인류의 평화를 齎來할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시기에서뿐 출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계급사회의 인간생활은 항상 물질과 정신 양면생활이 나타나지 못하는 역사적 제약이 있음으로써이다. ... 수운주의는 계급을 대표한 사상이 아니라 계급을 지양하려는 사상인 까닭에 계급사회를 지양시키려는 운동은 계급적 사상이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계급을 지양시키려는 사상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35]

계급사상만으로는 계급사회를 지양시킬 수 없다. 계급사회를 물심일원의 사상으로 지양시키자는 것이 수운주의이다. 수운주의 입장에서 볼 때, 유물(물질)과 유심(정신)은 인간존재의 양면에 불과하다.[36] 물질과 정신은 우주 실재의 두 가지 현상이고[37], 물질과 정신은 그 뿌리가 하나이기에 물심일원

---

34) 김형준이 말하는 변증법은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착안하면서도 유물론의 관점이 아닌 유심과 유물의 지양과 종합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한 것이다.

35) 김형준, 「사조상으로 본 수운주의의 지위」, 『천도교회월보』 243, 천도교중앙총부, 1931.3, 4-7면.

36) 물질과 정신, 유물과 유심은 우주 실재의 두 가지 현상이자, 인간존재의 양면 양식으로서 '유형'과 '무형'의 합용으로도 설명된다. 즉 세상은 유형이요, 한울은 무형이며 사람은 '유무합용(有無合用)'이라는 것이다. 주창원, 「천과 개인의 道團」, 『천도교회월보』2, 천도교중앙총부, 1910.9, 31면.

37) 이돈화는 지기일원(至氣一元)의 실재론을 말하면서 물질과 정신은 본체의 두 작용이라 하였다. 지기실재론은 서구철학 가운데 정신과 물질 어느 하나에 편향된 유물론이나 관념론보다는 물질과 정신을 통일하고자 했던 근대 실재론에 가깝다. 그러나 근대 실재론 역시 물질과 정신 이외에 제3의 철학으로 불리는 경향이 있고 이는 물질과 정신을 실재로 인정하는 선입견으로부터 온 것이기

(物心一源)이라 부르는 것이다. 본래 수운주의에서 인내천이란 '물질의 극치'인 사람과 '정신의 최고'인 한울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한다. 유심론자가 아무리 '인간은 정신의 소산물'이라 주장할지라도 그 생각하는 정신을 담는 물질적 육체를 부정할 수 없듯이 유물론자가 아무리 '인간의 정신은 물질의 소산'이라 주장할지라도 그것을 사고하는 인간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38] 김형준의 수운주의는 "물심일원의 철학"이고, "인간본위 운동"[39]이다.

인간본위(인간주체) 운동은 '생활양식'과 '생활태도'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생활양식이 주어진 객관적 조건을 뜻한다면 생활태도는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을 지칭한다. 이는 5가지(「현실에 대한 태도」, 「실천적(개벽적) 태도」, 「이상에 대한 태도」, 「수련적 태도」, 「사인여천적 태도」)로 구체화된다.[40] 「현실에 대한 태도」에서 현실이란 주체와 객체, 두 가지 대립물이 그 자체에 통일되어 있는 현실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현실을 '물질자체'라고 보았지만 김형준이 말하는 현실은 '대립물의 통일'이자 '모순의 구조'이기에 언제든지 분열될 위기를 그 자체에 갖고 있다. 현실의 위기는 이 대립물의 통일이 깨질 때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인간주체의 동귀일체적 힘'에 의하여 낡은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 발전되는 개벽의 전기(轉機)이기도 하다.[41]

> 현실의 위기는 현실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내부적 구조인 주체와 객체와의 모순 충돌 그리하여 인간주체의 동귀일체적 개벽의 힘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상태에로 발전되는 전기(轉機)인 것이다.[42]

물론 현실에 대한 태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현실을 맹목적으로 찬미하

에 지기실재론은 서구 실재론과도 거리가 있다. 즉 정신과 물질은 유일한 본체적 실재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돈화의 주장이다. 이돈화, 『신인철학』, 천도교중앙종리원 신도관, 1931, 31-32면.

38) 김형준, 「사조상으로 본 수운주의의 지위」, 앞의 글, 5면.

39) 조기간, 「조선운동의 영도문제: 모든 운동을 속히 진행시키는 선결문제」, 앞의 글 5면.

40) 김형준, 「수운주의자의 인간적 태도」, 『신인간』 79, 신인간사, 1934.5, 7면.

41) 김형준, 「수운주의자의 인간적 태도(二)」, 앞의 글, 4면.

42) 김형준, 「수운주의자의 인간적 태도」, 앞의 글, 12면.

고 완미한 것으로 보는 '현실지상주의', 현실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지니면서도 이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 추수주의', 현실 자체를 혼돈된 질서로 보고 개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개선된다고 보는 '현실상대주의(개량주의)'가 있다.[43] 그러나 김형준이 뜻하는 현실에 대한 생활태도는 '주체와 객체의 대립'이 생겨남을 계기로 개벽적 힘을 가하여 새로운 통일을 만드는 인간의 태도를 말한다. 원래 인간이 '주객의 통일체'라고 하는 주장은 의암 손병희에게서 비롯되었다. 의암은 '주객일치(主客一致)로서 천지만물이 主客의 勢'라 하였다.[44] 우주는 한울 스스로의 표현이고, 만물은 한울의 자율적 창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주체와 객체는 일체이다. '인간은 객관의 일부이면서도 객관을 형성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일정한 현실을 만들어놓게 되면 어느 순간 객체는 외부적 강제력이 되어 주체인 인간을 오히려 지배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주체(인간)와 객체(자연과 사회)의 분열을 낳아놓게 된다. 인간은 우주의 일부라는 점에서 객체이지만 우주 안에 있는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자신과 대립시키는 주체이기도 하다. 각 시대마다 객관세계는 그 안에 대립자를 내포하고 있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에 대립물을 갖고 있는 객체와 주체의 변증법적 통일물"[45]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유는 주체이자 객체이며 대립적 통일의 순환 관계를 갖는다.

인간은 단지 객관(자연)의 일부로서 외적 자연적 존재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체이면서 동복생'인 모든 다른 자연현상을 자신과 대립시키는 존재이다.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외적세계와 별립시켜 대립물로 인식하게 될 때에는 외적 세계는 '강박작용'으로 나타나고, 인간은 자신의 강박자에 대항하여 외적 세계를 변혁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통일과 창조의 발전이 가해진다. 따라서 김형준이 말하는 '변증법적 생활태도'는 '대항의 논리인 동시에 통일의 논리'이며 '분열의 논리인 듯하면서도 실제는 창조의 논리'이다.[46] 만약 외적 세계가 인간에게 대립적으로 강박하지 않는

43) 같은 글, 8-9면.
44) 『의암성사법설』, 「無體法經」 (『천도교경전』, 439면).
45) 김형준, 「위기에 빠진 현대문화의 특징」, 『개벽』 3 (신간), 개벽사, 1935.1, 78면.
46) 김형준, 「인간의 능동성 문제」, 『신인간』 90, 신인간사, 1935.4, 13면.

다면 인간은 그것을 정복[47]하고 변혁하며 창조와 발전을 가할 수 없다. 현실의 위기는 주체와 객체의 분열, 모순, 충돌일 뿐만 아니라 주객의 대립을 다시 새로운 통일 상태로 발전시키는 개벽의 전환적 계기이기도 하다.

한편 김형준은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자신이 말하는 인간본위의 변증법적 생활태도의 차이를 물심일치와 유물론과의 차이로 구분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동일한 물질 자체라는 점에서 진정한 대립적 통일이 아니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내재적 모순충돌에서 현실이 변혁된다는 것도 인간의 주체적인 실천을 무시하는 것이라 하였다.[48] 현실은 단지 정신자체의 객관화나 물질자체의 운동 과정이 아니다. 현실은 주체(인간)와 객체(자연 및 사회적 존재)의 대립적 통일이고, "인간 스스로 주격이 되어 모든 존재를 변화시키며 창조와 발전을 가하는"[49] 현실을 의미한다. "객관적 사실이 인간주체의 새로운 발전을 저지하게 될 때에는 인간주체는 언제든지 그 '동귀일체의 개벽적 힘'에 의하여 현실을 낡은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에로 발전시킨다." 현실의 발전은 오직 인간의 "동귀일체적 힘에 의한 개벽적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이른바 김형준이 말하는 「현실에 대한 태도」이자 「개벽적(실천적) 태도」이다.

> 현실은 발전한다. 그러나 현실의 발전은 오직 인간(蒼生級)의 동귀일체적 힘에 의한 개벽적 실천을 통해서뿐 발전한다. 이것이 수운주의자의 현실에 대한 인간적 태도이다. 현실을 영원불변하는 완미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수운주의자가 아니다. 그것은 완고배이다. 수운주의자는 언제든지 현실을 발전의 입장에서 후천개벽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수운주의자는 현실에 맹목적으로 추수하지 않는다. 현실을 무시하고 돌진 돌격하는 사람도 진정한 의미의 수운주

47) 김형준은 '정복'을 '극복'과 '초극'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가 말하는 정복은 지금까지 조선이 일관해 온 순응과 수동성에 대한 비판적 맥락에서 쓴 '적극성'과 '능동성'을 의미한다. 그는 수운이 "운수야 좋거니와 닦아야 도덕이라 너의라 무슨팔자 불노자득 한단말가"라고 말한 것도 당시 조선사람의 수동적 태도를 비판한 것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운수의 능동적 개척자가 되길 촉구한 것이며 능동적 인생관을 제시한 것이라 하였다. 김형준, 「능동적 인간관」, 『신인간』97, 신인간사, 1935.11, 20-21면.

48) 김형준, 같은 글, 10-11면.

49) 김형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위 其六」, 『신인간』 102, 신인간사, 1936.5, 30-32면.

> 의자가 아니다. 수운주의자는 현실에 입각하여 현실에 적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무조건 순응이 아니라 현실에서 최대한도의 가능한 범위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50]

김형준이 말하는 수운주의자는 현실을 완미한 것으로 보거나 맹목적으로 추수하지 않는다. 또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돌진·돌격하는 사람도 진정한 의미의 수운주의자가 아니다. 수운주의자는 현실에 입각하여 현실에 적응하게 행동하고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은 '현실에 적응하게 행동하는 개벽적 실천'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적응이란 '현실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이 아니라 현실에서 최대한도의 가능한 범위의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응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의 극복이 수반된다. 제약을 받는 인간생존이 일상적 상태라면, 그 제약을 극복하려는 개벽적 생활태도야말로 '본래적인 인간생존의 생활양식'[51]이 된다.

4. 휴머니즘 논쟁과 '인간본위'의 네오휴머니즘 규명

1) '프로'와 '네오'의 휴머니즘 논쟁

1930년대 후반, 조선에 등장한 휴머니즘 논쟁은 백철과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52]을 놓고 카프 활동을 했던 임화, 한효 등의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

50) 김형준, 「수운주의자의 인간적 태도」, 『신인간』 79, 신인간사, 1934.5, 12면.
51) 형준, 「인간주의의 필연성」, 『신인간』 103, 신인간사, 1936.6., 22-23면.
52) 김형준과 백철 두 사람의 휴머니즘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철학계와 문학계의 진행 방향도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학계에서는 백철의 인간묘사론(창작방법론)을 내부적 휴머니즘론의 맹아라고 보고 외부적으로는 1935년 6월 문화보호대회(국제작가회의)와 제7차 코민테른의 성과를 그 배경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문학계의 휴머니즘은 비정치적 순수문학으로 어용화 된 반면 철학계에서 휴머니즘은 김형준을 필두로 신남철, 박치우에 의해 논의되었고, '진보적 민주주의건설의 기초 이념'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신남철은 인간을 역사적·사회적 생물로 이해했고, 김형준이 말했던 변증법적 인간본위론과 맥락을 같이 하여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적 통일이 인간에 근원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 역사를 사회적 질곡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해방투쟁의 역사로 보았다. 신남철, 『역사철학』, 서울출판사, 1948, 100면; 신남철, 『전환기의 이론』, 백양당, 1948, 185, 191, 216면. 이는 김형준이 말한 주관과 객관의 대립적 통일 및 역사·사회적 개성으로서의 인간 이해와 맞아떨어지고, 동학의 역사관과도 연맥된다.

당시 임화는 백철과 김형준을 하나로 묶어 “역사위조의 소박한 선수”[53]라 칭했고, 김기림의 「오전의 시론(詩論)」을 주목하여 진정한 휴머니즘의 기점을 김기림으로 다시 세웠다.[54] 김기림이 “시민문학의 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보다 인류적인 현실문학에로 향하는 도정에서 휴머니즘을 취했다면 백철은 프로문학의 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보다 개인적인 시민문학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휴머니즘을 취했”고, 김기림이 “인간정신 가운데 이성적 판단이나 지적 비판에 따라서 높은 인간적 교양과 같은 것을 상정하고 있는 대신 백철은 생의 본능, 생물적인 격정으로 대치”한 것이었다. 또한 서구 휴머니즘이 ‘사회적 개인주의’라면 백철의 휴머니즘은 다분히 ‘동물적 개인주의’에 물든 것으로 비판되었다.[55] 이와 같이 임화는 김기림을 높이 평가하여 휴머니즘을 리얼리즘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 현대문학이 그 빈곤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휴머니즘의 재건, 세계사적 휴머니즘을 창조할려면 인간을 간판으로 한 어떤 주의가 아니라 시대현실의 핵심을 파내려는 집요한 寫實을 주의로 하는 문학정신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레아리즘이 현대적 암담 가운데 싹트고 명일의 陽地에서 꽃필 장대한 휴머니즘의 창조를 어떤 인간주의보다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문학 위에서 최대의 휴머니즘은 레아리즘이다.[56]

임화는 ‘리얼리즘’이야말로 문학의 최대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했고 백철의 휴머니즘론은 ‘소시민적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며[57] 현재 안팎으로 유행하는 휴머니즘 역시 르네상스의 부흥이자 상업자본주의의 연장에 다름 아니었다. 이는 현대문화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던 것

53) 임화, 「루넷산스와 신휴마니즘론」, 『조선문학』 3-4・5, 조선문학사, 1937.7, 172면.
54) 김정현은 1930년대 문학계의 휴머니즘 논쟁이 니체의 영향을 받은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론을 통해서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현, 「1930년대 니체사상의 한국적 수용: 김형준의 니체해석을 중심으로」, 『니체연구』14, 한국니체학회, 2008, 245면.
55) 임화, 「조선문화와 신휴마니즘론: 논의의 현실적 의의에 관련하야」, 『비판』 5-4, 비판사, 1937.4, 75-78면.
56) 임화, 「휴매니즘 논쟁의 총결산: 현대문학과 휴매니티의 문제」, 『조광』,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4, 147면.
57) 임화, 「문예이론으로서의 신휴마니즘에 대하야」, 『풍림』, 풍림사, 1937.4, 60면.

의 개량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어째서 루넷산스 휴머니즘은 부흥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또 재흥할 수 없는 것인가? 다름아니라 루넷산스란 현대사회의 선구인 상업자본주의가 봉건적 중세로부터 자기를 해방할려고 투쟁한 시기이며 현대사회문화를 위기에 처하게 한 조건을 작출한 최초의 원인인 때문이다.[58]

임화가 주장하는 리얼리즘은 현대문화의 위기를 초래한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대립하는 현대유물론에 가깝다. 이는 곧 프로휴머니즘을 의미한 것인데, 프로휴머니즘은 고리키가 사용했던 용어이다. 임화가 백철뿐만 아니라 김형준의 휴머니즘을 비판했던 것도 현대유물론이 휴머니즘만큼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였다.[59] 김형준의 휴머니즘은 '무규정의 일반적 휴머니티'[60]에 불과했고[61], 그것은 역사적 발전법칙과 인간의 경제관계로부터 분리된 '인내천의 철리(哲理)'이며, 김형준이 탈환하려는 인간성은 속박의 대상으로부터가 아닌 '유물사관으로부터의 탈환'이자 '합리주의와 과학성'으로부터의 탈환으로 간주되었다. 즉 임화에게 있어서 김형준의 휴머니즘은 지드도, 말로도, 미키 기요시[62]도 아닌 '니체적

---

58) 임화, 「루넷산스와 신휴마니즘론」, 앞의 글, 170면.

59) 임화는 백철과 김형준의 휴머니즘을 싸잡아서 비판하지만 김형준은 자신의 네오휴머니즘과 백철의 휴머니즘을 구분했다. 백철의 휴머니즘은 '知와 육체의 균형', '조화적인 인간'에 있을 뿐이고 그것은 '전체주의의 국민정신'을 근본으로 한 것이라 비판했다. 백철, 「휴마니즘의 본격적 경향: 현대인의 형성문제」, 『青色紙』2, 청색지사, 1938, 13면; 「신체제와 저너리즘: 신체제하의 문화」, 『인문평론』2-10, 인문사, 1940, 21-22면.

60) 임화, 「루넷산스와 신휴마니즘론」, 앞의 글, 172면.

61) 임화는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이 순수 인간의 주관적 행동성만을 강조한 것이고, 그가 말한 인간의 주체성, 행위성, 능동성, 창조성의 개념도 결국 소시민적 관념론인 하이데거의 철학으로 귀착되는 것이라 보았다. 또한 김형준이 비록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성'을 말하지만 이 역시 무의미하고 무내용적인 것이라 비판하였다. 임화, 「수운주의문화철학비판」, 『신계단』, 조선지광사, 1933, 47면.

62) 미키 기요시(三木清, 1897-1945)는 파스칼과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 로고스와 파토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각시켰고(『역사철학(1932)』),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지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의 결합문제를 '로고스와 파토스의 통일문제'로 정식화했다(「위기에 있어서의 인간의 입장(1933)」). 또한 그의 「인간학적 문학론」(1934)에서는 자신의 휴머니즘론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1937년 잡지 『사상』에 연재한 「구상력의 논리」에서는 오성과 감성을 결

인간'이고, '나치스 철학으로 창문을 연 파시즘'[63]을 의미했다. 물론 휴머니즘은 진보적 문화사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맑스주의와 거리 두는 데에 활용될 뿐이고, 자본사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된 관념론의 팟쇼화'[64]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형준은 "네오휴머니즘은 현대문화의 위기와 그것에 대한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고뇌와 반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하면서 인간의 본질은 행동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네오휴머니즘이란 "불안으로부터 재건을 목표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자체 안에서 지양 극복하며 새로운 문화 창건으로서 생겨난 것"[65]이라 하면서 그는 생의 철학으로부터 실존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이를 자신의 휴머니즘을 설명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그리고 "문제는 남의 것을 그대로 수입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섭취하며 발전시키는 데에 있"[66]음을 강조했다.[67]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은 서구 관념론과 유물론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인간을 강박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인간본위 운동이며 '주관과 객관의 대립적 통일체'로 인내천주의를 체계화한 '변증법적 휴머니즘'이다.[68]

합시켰다. 이는 칸트로부터 영향받은 것이었다. 윤규섭, 「三木淸 구상력의 논리」, 『인문평론』, 인문사, 1940.2, 101-103면. 요컨대 미키가 말한 '구상력의 논리'란 주관과 객관, 파토스와 로고스의 내적 통일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형준은 그가 말하는 통일 역시 절충에 불과하고 주관주의로 빠져드는 것이며 진정한 주관과 객관의 통일이란 단순한 내재적 통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63) 임화, 「조선문화와 신휴마니즘론: 논의의 현실적 의의에 관련하야」, 앞의 글, 88면.

64) 임화, 「루넷산스와 신휴마니즘론」, 앞의 글, 168면.

65) 김오성, 「휴맨이즘 문학의 정상적 발전을 위하야」, 『조광』,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6, 318면.

66) 김오성, 「네오·휴맨이즘 문제: 그것을 위한 인간파악의 방법」, 『조광』,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12, 190면.

67)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은 서구 반파시트 휴머니즘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이를 옹호해나가면서도 이를 수단 삼아 동학을 표현하고자 했기에 결과적으로 서구의 것과 거리를 두게 된다. 이는 동시적으로 서구 근대 사유를 극복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68) 고봉준은 김형준의 휴먼을 1935년 전후 미키 기요시(三木淸) 등 일본 사상계에 제출되었던 로고스와 파토스의 통일, 능동주의와 행동주의를 휴머니즘 개념으로 포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는 백철의 인간묘사론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행동적 휴머니즘'과 '능동주의'의 두 축으로 근대의 혼란을 돌파하려는 문화적·사상적 대안의 성격을 띠며 탈근대적 주체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를 마르크스에 영향을 받은 동시에 파시즘으로 귀결되는 속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고봉준, 「1930년대 비평장(場)과 휴머니즘: 김오성의 네오휴머니즘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0(12-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488면.

2) 김형준의 '인간본위'의 네오휴머니즘

김형준은 현대 휴머니즘의 기점을 1935년 「반파시스트 문화옹호 국제작가대회」에서 찾았다. 그리고 문화옹호대회 이후 발전되기 시작한 휴머니즘운동은 반파시즘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 보았다.[69] 이는 백철의 휴머니즘이나 독일의 인도주의적 휴머니즘,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동경문단의 휴머니즘이나 르네상스 휴머니즘과도 일정부분 선을 긋는 것이었다.[70] 또한 막스 쉘러 류의 철학적 인간학도 새로운 인간학을 창건할 준비공작에 불과한 것이라 하면서 이 역시 네오휴머니즘과 구분시켰다. 철학적 인간학이 하나의 인간해석이요, 인간이념의 관념적 설정이라면 휴머니티의 획득은 '인간학'이 아니라 '휴머니즘의 운동'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71] 또한 그는 페르낭데스가 "감정과 이지(理智)와 의지를 순간마다 통일하는 정신적인 자세"로서 행위적 관점을 말한 바 있지만 이는 순수정신적인 행동으로서 외부를 변혁시키지는 못한다고 하여 이를 자신의 네오휴머니즘과 거리를 둔 바 있다.[72] 이는 단지 페르낭데스뿐만 아니라 서구 생철학이나 실존철학과도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이들 모두가 감성과 이성, 객관과 주관의 통일체를 주장하지만 결국 주관주의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반면 수운주의란 주객일치로서 "진리의 측면에서는 인내천주의"로 부르고, "생활의 측면에서는 인간본위 운동"[73]을 칭하는 것으로서 인간본위 운동이란 현실을 초극(극복)함이고 초극성은 주체성이며 그의 행위적 관점과 현실의 초극(극복)은 곧 주관과 객

69) 카프의 일원이었던 박승극은 제1회 문화보호대회를 국제작가대회로 지칭하면서 '문화옹호를 절규하기 위하여 모인 반파쇼작가의 국제적 회합'으로 성격을 규정지었다. 그러나 이는 정치운동자의 대회는 결코 아니었고, 단지 문화의 파멸을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회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박승극, 「문화옹호 국제작가회의의 경과, 빠르뷰스의 訃音을 듣고(一)」, 『조선중앙일보』, 1935.9.8., 4면.). 한편 카프 활동을 했던 한식은 제2회 대회는 제1회와 달리 문화적 영역의 투쟁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영역으로 나간 점에서 그 국제적 의의를 부여했다. 한식, 「문화옹호의 정열과 의의: 제2회 국제작가회의에 대하야」, 『동아일보』, 1937.11.25.4면.

70) 김오성, 「네오·휴맨이즘문제: 그것을 위한 인간파악의 방법」, 앞의 글, 190면.

71) 김오성, 「역사에 있어의 인간적인 것: 인간은 자기의 휴머니티를 어떻게 주장해왔나」, 『인문평론』, 인문사, 1940.3., 17면.

72) 김오성, 「네오·휴맨이즘문제: 그것을 위한 인간파악의 방법」, 앞의 글, 193면.

73) 김형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위」, 『신인간』 101, 신인간사, 1936.3.

관의 대립적 통일이자 능동적 인간타입의 창조라 하였다. 인간본위의 능동적 인간, 현실을 극복할 새로운 인간 타입의 창조야말로 김형준이 말하는 네오휴머니즘의 근본목표였다.

> 주체성은 초극성인 것이다. 초극이 없는 곳에 주체성은 발휘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초극에 의해서만 생존의 비극성도 지양되는 것이다. 네오휴머니즘은 이러한 현대의 비극적인 생존을 초극하려는 것이다. (…) 현실을 초극함은 새로운 인간타입을 창조하는 행위이다. 종래의 관상적 수동적인 무력하던 인간적 현실을 초극하고 인류의 내일을 새로히 생산하며 창조하며 발전시키려는 생명과 의욕과 용기와 저력이 교익(交溢)한 새로운 능동적인 인간타입의 창조! 이것이 네오휴머니즘의 근본목표이다. 기존의 것을 해석하고 묘사하는 것이 철학이나 문학의 임무가 아니라 낡은 것의 파괴, 새로운 것의 발아 즉 현실의 밑바닥에서 생성하는 가능적인 것을 인식하며 탐구하는 것이 새로운 철학, 새로운 문학의 임무이다.[74]

김형준이 휴머니즘운동을 주목하고 이를 조선적으로 확립해나가자고 했던 것은 1935년 프로문학이 강제해체됨에 따라 다른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모든 실제행동이 불가능한 금일에 있어 인간성의 탐구, 인간생존의 앙양을 목표로 하는 휴머니즘이 유물변증법이나 리얼리즘보다 오히려 적응성"[75]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요컨대 김형준이 말하는 휴머니즘은 오늘의 시대적 현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각적인 인간의 새로운 생활태도에 중점 둔 것이었다. 이는 조선인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형성시키는 일이고, 인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① 인간을 실체로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탐구하는 것, ② 인간을 관상적(觀想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 ③ 인간현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극하는 것이었다. 인간을 실체가 아닌 주체로 탐구한다는 것은 인간을 피조물, 정신, 물질 등 어떤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대립적 통일체'로서 보는 것이고, '행위적 관점'에서 인간을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의 외부적 강박에 대한 인간의 대항이

74) 김오성, 「네오·휴맨이즘문제: 그것을 위한 인간파악의 방법」, 앞의 글, 197면.
75) 같은 글, 189면.

자 현실의 극복으로서의 인간 행위를 뜻한다. 이는 '변증법적 인간본위'를 주장한 그의 동학사회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객관적 피제약성이 인간생존의 일상적 상태라면 그 제약을 극복하려는 능동적 주체의 행위는 본래적인 인간생존의 생활양식인 동시에 다시금 주객의 대립적 통일을 이루는 '인간본위의 문화창조'이다.

> 인간을 피제약성과 동시에 능동적 주체성에서 파악하는데서 우리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한 가지로 그 근저로부터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 우리의 비판은 단지 인간성의 비판에 멎어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존재의 탐구 즉 새로운 인간타입의 창조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以上의 인간성의 비판에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오류를 폭로시켰을 뿐 아니라 또한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는 객체와 주체를 통일한 인간적인 문화가 아니면 안 될 것을 암시받은 것이다.[76]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은 르네상스의 연장이나 서구 인본주의의 이식이 아닌 인간본위에 입각해 있다. 일찍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에서 발견된 개인은 "경쟁하는 개인"이었고, 개인의 자유는 "경쟁하는 자유"이었으며[77], 개성은 근대적 사회기구를 형성함에서 요구되는 모나드적 개성이었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경쟁하는 개인, 경쟁하는 자유로서 개성을 확보했지만, 결국 자유경쟁은 독점자본으로, 데모크라시는 독재정치에로 전화하게 되었고, 그 자본문화는 인간 소외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의 고갈과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었다.

> 근대사회에서 발견된 인간은 철두철미 자아의식이었다. 즉 인간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가진 자아의식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여왔다. 그리하여 자아의식이 현실 세계를 창조한다고 본 것이 근대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한 인간의 본질이었다. (…) 금일은 과학적 기술도 자본이라든가 세계시장 등등에 얽매이어서 아무런 자유 발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자아의식, 이성만능, 자유의지 등등을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몰락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78]

---

76) 형준, 「인간주의의 필연성」, 『신인간』 103, 신인간사, 1936.6, 23-24면.
77) 김오성, 「휴맨이즘 문학의 정상적 발전을 위하야」, 『조광』,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6, 322면.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은 역사적 전형기의 산물이다. "현대의 온갖 질곡으로부터 인간생존을 옹호하려는 일체의 안티・휴머니티에 대한 반항의식에서 기인"했고, 자본주의와 파시즘에 대항하는 형태로서 출현했다. 그의 네오휴머니즘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립점에 서 있는 것이었고, 이는 단순히 인간다움을 말하는 '미온적・도덕적 의미'의 인도주의도 아니었다. 그의 네오휴머니즘이 지향하는 인간해방은 '인간 전체성'[79] 이 주체가 되는 해방이고, 네오휴머니즘이 요구하는 개성은 역사・사회적 개성이다. 현실의 질곡과 모순은 이러한 전체적이고, 역사・사회적인 개성만이 초극할 수 있다. 여기서 역사・사회적 개성이란 '역사적 발전 방향에 참가하며 자기와 동일한 운명에 처한 모든 인간과 함께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인간주체를 말한다.[80] 또한 인간주체란 '동귀일체의 개벽적 힘'으로서 한울의 우주생명력과 일체로 돌아가 세상을 개벽하는 '자율적 문화창조자'로서 그가 지향했던 네오-휴먼(신인간)이다.[81]

5. 결론

일제하 동학사상의 전개는 이돈화, 김기전, 김형준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서구사상을 수용하여 동학사상을 보다 현대화된 담론으로 표현했고, 자본(제국)주의에 대항한 피압박민족(무산자)의 연대라는 사회주의적 실천을 주목했다. 동학(천도교)의 사회주의 수용은 신문화운동계열, 고려혁명위원회의 혁신파 계열, 공산당 계열로 유형들을 분류할 수 있다. 물론 박진순 같이 신문화운동 계열의 조선농민사와 상해파 공산당을 동시에 대표한 인물도 있고, 세 유형 모두 동북아연대 속에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혁명운동

78) 김형준, 「新人間의 史的 지위: 인간의 자기발견사적 고찰」, 『신인간』57, 신인간사, 1932.7.
79) 김형준은 인간을 "우주적・한울적・사회적 존재이자 '정신물리적 통일체'이며 사회적 신체, 한울적 신체로 태어나는 전일적(全一的) 개인"이라 하였다. "개인은 날 때부터 개체로서가 아니요 크게는 우주적 한울적 존재의 일부로서, 작게는 사회적 존재로서 태어난 것이다." 김형준, 「인간해석사적으로 본 인간본위운동(四)」, 『신인간』 78, 신인간사, 1934.4, 18-19면.
80) 김오성, 「휴맨이즘 문학의 정상적 발전을 위하야」, 앞의 글, 323면.
81) 김형준, 「新人間의 史的 지위: 인간의 자기발견사적 고찰」, 앞의 글.

과의 교섭 속에서 국제정세를 전망하고 운동을 조직해나갔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세 유형의 활동은 동학사상의 위상과 해석에 따라 분명히 구분된다.

신문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동학사회주의는 신인간주의에 바탕한 것으로서 인간해방의 역사관(김기전), 생활양식과 의식계급의 발전론(이돈화), 변증법적 주객통일의 인간주체론(김형준)으로 그 성격을 특징지을 수 있다. 이돈화나 김기전이 신문화운동의 1세대라면 김형준은 2세대에 속한다. 김형준은 1세대가 이루어 놓은 동학사회주의를 계승하면서 1930년부터 꾸준히 동학사상의 이론적 틀을 신인간주의(新人間主義)로 다듬어나갔다. 원래 신인간(新人間)이라는 말은 이돈화가 1920년 신문화운동을 시작하면서 쓴 말로서 동학사상(수운주의)인 '인내천주의'를 세 글자로 표시한 것이었다.

김형준은 '수운주의'를 진리의 측면에서는 '인내천주의'라고 부르고, 생활의 측면에서는 '인간본위운동'이라 칭하여 자신의 신인간주의의 중심축을 '인간본위 운동'에 놓았다. 그리고 이를 네오휴머니즘과 연계시켜 확장해 나갔다. 그의 인간본위운동은 '변증법적 생활태도론'에 입각한 것이었고, '주관과 객관의 대립적 통일체'로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며 현실의 위기를 개벽의 전기(轉機)로 삼는 '실천적 생활태도'를 중시한 것이었다. 물론 인간본위라는 말은 김형준의 창조어는 아니다. 이돈화가 이미 인간본위운동을 제기했고 조기간은 당시의 조선 사상계를 '자본주의 사상의 개인주의', '물질 본위의 사회주의', '인간본위의 수운주의'로 나눈 바 있다. 그러나 김형준의 인간본위는 변증법적 성격이 강하고, 마르크스의 이론적 틀을 넘어서고자 한 것이었으며 인간개성을 모나드적 개성이 아닌 역사적·사회적(한울적) 개성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특히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관과 객관의 대립적 통일'은 서구 '생의 철학'이나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감성과 이성의 결합, 혹은 미키 기요시가 주장한 파토스와 로고스의 결합으로서 보는 구상력과도 차이를 드러냈다.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은 관념론에 불과한 인간 내면에서의 주객통일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 인간과 객관(자연과 사회, 우주)을 전일체로 보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또

한 해방 이후 김형준의 네오휴머니즘은 신남철에 의해 '혁명적 휴머니즘'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김형준의 인간 본위의 휴머니즘은 역사 변혁의 주체로서, 그리고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역사·사회적 개성으로서 인간 이해를 제시하고, '동귀일체의 개벽적 힘'에 의한 현실 극복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개벽』
『동아일보』
『비판』
『삼천리』
『신계단』
『신인간』
『인문평론』
『조광』
『조선문학』
『조선중앙일보』
『중외일보』
『천도교경전』
『천도교회월보』
『青色紙』
『풍림』

경희대학교소장본(복각), 『倭政時代人物史料』3, 국회도서관, 1983.
고봉준, 「1930년대 비평 장(場)과 휴머니즘: 김오성의 네오휴머니즘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0(12-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485-510면.
김정현, 「1930년대 니체사상의 한국적 수용: 김형준의 니체해석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14, 한국니체학회, 2008, 245-280면.
량만석, 『동학의 애국애족사상』 (조선사회과학학술집4 철학편273), 사회과학출판사, 2009.
레닌, 조선산업노동조사소 역, 『사회주의와 종교』, 우리문화사, 1946.
신남철, 『역사철학』, 서울출판사, 1948.
_____, 『전환기의 이론』, 백양당, 1948.
이돈화, 『신인철학』, 천도교중앙종리원신도관, 1931
정혜정, 「만해 한용운의 불교유신사상에 나타난 '주체적 근대화'와 마음수양론」, 『불교학연구』 51, 불교학연구회, 2017, 125-157면.
_____, 「식민지 조선의 러시아 사회주의 수용과 동북아연대: 아나키즘·볼셰비즘, 동학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27(13-1), 이화여대 인문학연구원, 2020, 145-172면.

【Abstract】

Kim Hyung-jun's 'Donghak Socialism' and 'Neo-humanism'

Jung, Hye-Jung*

The acceptance of socialism by Joseon under Japanese rule was a part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The development of Donghak ideology at that time was strongly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socialism. This study named the socialist development of Donghak ideolog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s 'Donghak Socialism', and tried to examine the context of Donghak ideology presented from it, centering on Kim Hyeong-jun (Kim Oh-seong). Kim Hyeong-jun was a person who stood at the center of the ideological debate with socialism in the 1930s. Kim Hyeong-jun's Donghak Socialism was trained and formed in the course of religious debates with socialists as well as in the acceptance and criticism of Marxism. He accepted Marx's theory of religious struggle of anti-establishment religion and reconstructed it from the standpoint of Suunism (水雲主義). In addition, by inheriting the Donghak socialism that appeared in the new culture movement, the historical view of human liberation (Kim Ki-jeon) and the development of lifestyle and class of consciousness (Lee Don-hwa) were developed into his dialectical life attitude theory. This refers to 'Inneacheonism (人乃天主義)' in aspects of life, meaning the dialectical humanistic movement of the unification of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and it was the basis of neo-humanism in the 1930s. However, while insisting on pro-humanism, Im Hwa criticized Kim Hyung-jun's neo-humanism as 'general humanism without definition' and 'Nazi fascism'.

Keywords: Kim Hyeong-jun (Kim Oh-seong), Donghak Socialism, ideological debate about anti religion, humanistic movement, neo-humanism.

접수일: 2021.12.28. || 심사일: 2022.01.11. || 게재확정일: 2022.02.05.

* Academic Research Professor, Conflict Healing Institute, Dongguk Univ(Gyeongju).